

김우진의 문자의식과 문학어의 성립과정

- 일기 및 「朝鮮말 업는 朝鮮文壇에 一言」을 중심으로

윤진현*

〈차례〉

1. 머리말
2. 이중 언어 상황과 표기어의 정립과정
3. 「朝鮮 말 업는 朝鮮文壇에 一言」과 그 실천 방법
4. 맺음말

1. 머리말

수산 김우진의 희곡에 대한 학계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김우진의 언어, 또는 문자 표기 등에 대한 관심은 일천하였다. 윤진현이 그 학위논문에서 1개 소절 중에 간단히 언급하고 있고¹⁾ 이어서 <정오>의 창작연대를 추정하는 논문에서 김우진의 표기상 변화를 고찰하면서 김우진의 평론 「조선 말 업는 조선 문단에 일언」에 언급된 표준어 제정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 보았을 뿐이다.²⁾

근대화 즉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표준어의 제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

* 인하대 강사

1) 윤진현, 「김우진 문학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 논문, 2002. 2, 62~63면.

2) 윤진현, 「김우진 희곡 <정오>의 창작연대」, 『한국극예술연구』 18집, 연극과 인간, 2003.10, 48~49면.

었다. 서양의 경우, 인쇄업이 산업으로서 확고부동한 지위를 확보하고 통속적인 문예물을 비롯, 여러 계통의 잡지 등 다양한 서적들이 출간되던 18세기에 이르르면 독서는 이미 상류층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 된다³⁾ 김우진의 교과 레포트로 보이는 「‘스펙테이터’의 역사」(1920)에 언급된 ‘테틀러(Tatler)’ 및 ‘스펙테이터(Spectator)’ 지(誌)와 「‘조선 말 엮는 조선문단’에 일언」에 거론된 사무엘 존슨의 영어사전 편찬 작업 등은 모두 이 시기의 산물인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883년 연활자와 현대식 활판 인쇄술이 도입된 이래 빠른 속도로 근대 인쇄술이 인쇄 및 근대 출판물을 지배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산업적 동력에 의거하여 신문 잡지 등이 양산되고 이를 매개로 계몽 논설과 신소설 등이 출판, 보급되면서 표준어 제정의 필요가 널리 대두되기 시작하였다.⁴⁾ 즉 표준어의 제정은 어문의 근대화 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할 일인 것이다.⁵⁾

그러나 표준어는 국가 권력의 지지를 통해서만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근대화 과정을 식민지 상태로 겪으면서 국가 권력의 지지를 받아 표준어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조선어는 표준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제와 충돌하게 된다. 이것이 ‘조선어 학회 사건’이다. 또한 조선어의 표준화 과정이 ‘독립운동’, 특히 근대 초기 주시경의 민족운동적 어문운동이 역사적 담론과 결합하여 독립운동의 차원으로 신화화될 수 있었던 사정이기도 하다. 물론 조선어의 표준화 과정에서 수행되었던 이러한 역사적 역할에 대해서는 그 긍정적 측면을 일정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지만 조선어 또는 민족어의 발견이라는 측면이 그것만으로 무조건 항일 운동차원에서 우호적으로 다루어질 일은 아닌 것이다.

3) 아놀드 하우스/염무웅·반성완 공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근세편 下, 창작과 비평사, 1989, 54~59면 참고.

4) 이현식, 「한국 근대 문학 형성의 사회사적 조건」,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민족문학과 근대성』, 문학과 지성사, 1995, 76~85면 참고.

5) 이해령, 「한글운동과 근대 미디어」, 민족문학사학회 기초학문연구단 편, 『한국 근대문학의 성립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5, 39면

더구나 일제 강점기의 문명어는 일본어였다. 애국계몽기의 드높은 교육열과 지식열이 근대적 공공담론장을 크게 확대하고 그 참여자의 범위도 눈에 띄게 넓혔지만 이후 조선의 식자 대중의 수는 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합방 이후 공적인 교육과 문자 생활이 모두 일본어로 행해졌으며 초등 공교육 과정에서부터 조선어 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일어로 씌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어 해독능력은 근대문물을 누리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다.⁶⁾ 또한 이는 ‘문학’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 근대 초기 문인들의 창작과도 밀접한 문제였다. 일본식 표기 방법의 응용에서 국한문혼용체를 구사한 이인직이나 일본의 언문일치운동이란 제도적 장치를 따른 육당, 춘원의 언문일치운동, ‘소설의 구상은 일본어로 하였기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김동인의 자술과 시라카바 파의 고백체로부터 독특한 내면 양식을 수용한 염상섭의 작업에 이르기까지 문학어로서의 조선어는 일본어의 강력한 영향 하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⁷⁾

이러한 사정은 김우진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1919년 일찌감치 국문을 ‘사랑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였고 1922년 표준어의 제정을 주장하였으며 당시 출간된 조선어문전의 섭렵을 통하여 당시의 주된 표기체계와는 달리 주시경 계통의 한글을 구사하고 있었으나 일본어 글쓰기는 김우진에게 현실 상황이었다. 학업 중의 과제로 보이는 문학적 비평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자발적으로 창작된 일부의 시와 소설 또한 일본어로 씌어 있거나 드물게는 일본어와 국문번역이 공존하며 일기 또한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이 뒤섞여 쓰였다. 이렇게 보면 김우진 문학, 더 정확하게는 2권의 『김우진 전집』(연극과인간 2000)은 일본어와 조선어가 한 작가의 집필 활동에서 어떠한 각축을 벌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쟁투의 장이라 할 것이다.

6)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93~99면

7) 김윤식,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167~174면.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김우진이 채택하고 있는 표기 문자(한국어/일본어·영어)에 따라 기술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중 일본어로 된 와세다 재학 시절의 학년 표시가 있는 영문학 관계 평론들은 수업용 레포트일 확률이 높으므로 일단 제외하고 김우진의 내면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일기는 일종의 개인서사양식으로서 고백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⁸⁾ 물론 한국의 전근대 사회의 기록문화를 살펴볼 때 일기는 이미 존재해 왔던 것이나 일종의 ‘내면적 고백’을 내포하고 있는 근대적 서사 형식으로서의 일기는 근대 이후에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우진의 일기의 경우 발표를 전제로 한 문학적 글쓰기가 아니므로 문학으로서의 고백과는 다르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타자의 시선과 무관한 차원의 개인 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타자의 성립과 그 전도를 통해 ‘내면’ 또는 ‘진정한 자기’가 구성되어 온 점을 상기할 때, 일기가 김우진의 ‘내면’을 구축해 온 중대한 기반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통해 표기 문자에 따라 기술되는 내용의 차이를 확인하고 아울러 「조선 말 엮는 조선문단에 일언」에서 제기하는 문학어의 정립 방안과 김우진의 ‘희곡’ 장르의 발견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본고의 궁극적 목표는 김우진의 문학 세계에서 구축되는 ‘내면’과 문자의식의 통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 되는가를 밝히고 그것이 지닌 희곡사적 의의를 살피는 데 있다. 본고는 이의 예비적 고찰의 성격을 지닌다.

8) 임병권, 「‘고백’을 통해 본 내면성의 정착과 주체의 형성」, 민족문학사학회 기초학문연구단 편, 앞의 책, 139~144면 참고.

2. 이중 언어 상황과 표기어의 정립과정

2.1. 언어별 일기 일람

현전하는 김우진의 일기 《心の跡 - vol.16.》은 1919년 1월 24일에서 1925년 5월 28일까지 기록되어 있다. 7년간 총 84일분으로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이 함께 쓰였다. 표지에 써어 있는 ‘vol.16’은 제16권이라는 뜻이지만 이 노트가 쓰이기 시작한 1919년 이외에 열다섯권의 일기가 실제로 존재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일기를 다루지 않은 다른 공책들과 이어지는 일련 번호 중의 하나인지, 아니면 일기를 다루지 않은 다른 공책들과 이어지는 일련 번호 중의 하나인지, 아니면 김우진이 임의적으로 붙인 번호인지 권수의 표시가 적인 다른 공책이 남아있지 않아 ‘16’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다.⁹⁾ 다만 현전하는 일기 《心の跡 - vol.16.》의 경우, 1919년부터 드물게나마 지속되고 있으며 출가 이후인 1926년 7월 3일 ‘만일의 오해’를 염려하며 ‘이 기록의 단편들이 이것만을 피해주게 하는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는 글을 첨가하고 계제 익진, 포석 조명희, 홍해성을 수신자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心の跡 - vol.16.》 외의 다른 일기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언어별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언어별 일기 상황

연도	언어별 구분				연도별 계
	한국어	일본어	영어	기타	
1919	44	2	-	1 (일어, 영어)	47

9)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전집』Ⅱ, 연극과 인간, 2000, 436면.

1920	3	3	-	1 (일어, 한국어)	7
1921	-	1	-	-	1
1922	2	8	-	1 (한국어, 일어)	11
1923	2	8	1	-	11
1924	3	1	2	-	6
1925	-	-	-	1 (영어, 한자)	1
계	54	23	3	4	84

이상의 표에서 알 수 있듯 총 87일분의 일기 중 절반이 넘는 47일분이 1919년에 씌어졌으며 그 중 44일분이 한국어로 씌었다 이는 한국어로 씌어진 전체 일기의 80%가 넘는 것이다. 1920년 이후에 씌어진 37일분의 일기에서 한국어로 씌어진 부분이 10일, 일본어로 씌어진 일기가 21일, 영어 및 복수 언어로 씌어진 일기가 6편으로 일본어가 우선적으로 씌었음을 알 수 있다.

언어별로 기록된 구체적인 기술내용은 다음에서 살펴볼 것이다.

2.2. 1919년, 민족애의 열정과 조선어 일기

<표 2> 한국어 일기 일람

번호	날짜		기술내용
	연도	월일	
1	1919	01. 28.	아버지의 편지 및 친척방문, 순종의 붕어
2		01. 30.	內崎교수의 일부일부론
3		01. 31.	한국어 일기쓰기의 발견
4		02. 01.	김상규, 소림풍 등과 주석
5		02. 02.	외세다 동창회
6		02. 03.	재혼불가론

7	02. 05.	익진의 유학 결정
8	02. 06.	시 감상
9	02. 09.	28 독립선언의 경과
10	02. 10.	28 독립선언에 대한 기사
11	02. 11.	최팔용 등의 검사국 이송 기사
12	02. 12.	청년회관 집회의 무산
13	02. 13.	후속 사건 및 이광수 평판
14	02. 15.	조선학생 재판 경과
15	02. 16.	판결과 항소, 오한* 씨 방문, 감상적 시
16	02. 17.	브라우닝
17	02. 20.	전중구자의 가출사건
18	02. 21.	민인동맹회 참여
19	02. 22.	전중구자의 가출사건
20	02. 26.	김상수의 가출
21	02. 27.	푸쉬킨 아들의 부상소식과 민족문학의 세계화소망
22	03. 03.	순종의 사망, 요배복전
23	03. 07.	시사신보의 3·1운동 소식
24	03. 08.	3·1운동에 대한 각신문의 태도
25	03. 10.	동창회, 동맹휴교 결의
26	03. 11.	시험거부, 동맹휴교 시작
27	03. 12.	신문기사, 최팔용 등에 대한 감상 익명격문 수신
28	03. 13.	한장대 방문, 저녁식사
29	03. 14.	○회관 우인방문, 독립에 관한 토론, 시 <파선자>
30	03. 16.	麴町 유학생기숙사 동맹퇴사 기사
31	03. 17.	여명회 참여
32	03. 18.	최팔용 면회, 모파상, 다닌치오, 준이치로 등 독서감상
33	03. 19.	항소원, 방청금지
34	03. 21.	국민신보 기사 제목
35	03. 22.	시사신보 지방 3·1운동 기사
36	03. 23.	동경신속 투숙한 지 1년, 두 동생과 담화, 시사신보 기사
37	03. 31.	두 동생과 원만한 생활
38	04. 01.	시사신보에 따른 최팔용 등의 판결, 9개월
39	04. 20.	낭만적인 감상(感想)
40	04. 29.	파우스트 독서와 감상 (일본어 시 부기)
41	04. 30.	낭만적 비탄
42	05. 02.	창작방법에 대한 고민
43	05. 11.	낭만적 비탄
44	06. 23.	시 호박색

45	1920	03. 05.	가정사에 대한 고민 (1915~1917년작 5편 첨부)
46		03. 06.	시험 끝, 낭만적인 감상
47		09. 26.	에이즈의 시, 낭만적 연정
48	1922	12. 02.	아인슈타인의 강연회, 시적인 인생론
49		12. 03.	아버지 편지, 부자 갈등을 극복할 힘의 갈구
50	1923	07. 02.	자신의 성격과 부자 갈등
51		08. 14.	문예론적 단상
52	1924	08. 24.	일상적인 의지와 계획 (조명희에게 보내는 편지)
53		11. 22.	자기를 기만하는 자 (수선에 대한 논평)
54		11. 29.	가족 내의 갈등과 구질서 및 가치관 비판

김우진의 일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해는 1919년이다. 1919년 1월 24일 일본어로 시작된 일기는 1월 28일 일본에서부터 한국어로 쓰이기 시작하여 1월 31일 국문으로 일기를 쓰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발견하면서 집중적으로 씌어진다. 총 84일분의 일기에서 절반이 훌쩍 넘는 47일분이 이 해에 씌어졌고 그 중 44일분이 한국어로 씌어졌던 것이다 이때의 한국어 일기들은 2·8 독립선언과 3·1운동의 여파로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적 기록과 민족적 열정이 넘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즉 <표 2>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한국어 일기의 대부분이 1919년에 씌어졌다는 것과 그 대부분이 초등학생이 처음 일기를 쓸 때 그러하듯, 그날의 사건과 행적의 기록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3·1운동의 여파가 숙어들고 그 결과도 윤곽이 드러나는 6월 이후 김우진의 일기는 소강상태에 빠져든다. 그 이후의 일기는 1919년의 감격과 결심이 무색하게 그 중심이 일본어로 옮겨가며 이후 1920년에서 1925년의 일기 총 37일분 중 한국어 일기는 10일분에 불과하다.

이때 구사하는 문체는 국한문혼용체이다. 그러나 단순히 국한문혼용체라 하기에는 부족하다.

父主부터 下書하신 중 彼 悖逆無道한 瀨鎮의 最近事가 기록하여 있다. 그의 성질, 稟志는 惡魔의 呪詛이다. 日後 其 子孫의게 潛勢되얏던 惡魔의

呪詛가 발현될 줄을 확인하고信한다. 그의 모든 죄악 불의 잔인 무도無道는 그의 주저에 환원하리라. 아! A wolf in sheep's clothing이여. 소위 外面如菩薩 內面如夜叉라는 문자가 있으니 彼 즉 外內共如夜叉의 惡物이다. (하락) (1919년 1월 28일, 『전집』Ⅱ, 440면)

이상에 따르면 한자에 조사나 어미를 결합한 형태의 문장이 쓰이고 있는데 그 사용 어휘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저’ 또는 ‘그’의 뜻을 가진 彼와 其가 거듭 사용되고 있으니 이는 한국식 국한문혼용체라기보다는 일본식 문장인 것이다. 김윤식은 이인직의 <혈의 누>(『만세보』, 1906)에 사용된 국한문혼용체가 일본식 문체였으며 육당 춘원의 언문일치 운동이 일본의 그것을 따르고 있어 일본 내에서의 언문일치 운동이 지녔던 현실적 긴장감은 사라지고 단지 교육의 방편으로서 계몽주의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것은 명백하다고¹⁰⁾ 하였다. 한계는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도에 있는 것이며 국한문혼용체라는 문체로 사유하고 표현하는 한, 계몽주의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김우진이 기꺼운 마음으로 열광한 국문은 ‘국한문혼용체’였고 이에 계몽적 차원에서 언술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격렬한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의 인용된 일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김우진 집안 정확하게는 김우진의 부친 김성규의 골칫거리였던 종손 김호진의 패역사가 기록된 편지를 받고 김우진은 아버지의 분노에 공감하며 김호진이란 자는 악마의 저주를 받았다고 단정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김호진이란 집안 인물을 비판하는 근거는 아버지의 판단, 아버지를 지배하는 기존의 윤리도덕에 있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 김우진의 부친 김성규는 다산과 반계의 학통을 계승한 개화기 진보적 지식인의 일원으로서 그의 개혁안은 광무개혁의 중요한 사회경제론적 기반이 되었으며 아들에게 강제했던 김성규의 생활 태도는 양반적 규율에 바탕하여 프로테스탄트적인

10) 김윤식, 앞의 책, 169~170면

부르주아지의 일상규율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으니 이 시기 김우진의 관점은 아버지와 불화하고 있지 않다.¹¹⁾

이러한 김우진의 계몽적 관점은 3일 후인 1919년 1월 31일의 일기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김우진은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6일째에 이르러 감격스러운 어조로 국문일기를 쓰기 시작한 자신을 발견한다.

只今이야 覺知하였다. 四五年을 日本文으로든 記錄하여 오든 너의 日記가 이제 우리 本國文語로 記錄됨을. 이 사뭇스러운 國文으로 無意識으로 記錄할 지 前日을 ○上하여 調査할 지 三日○부터이다. 그에게는 아모 緣由 업시 始作한 너의 國文日記가 이제 너의 意識에 올랐다

나는 깃거한다. 나는 깃거한다.

우리는 깃거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스릉 하고 우리를 깃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제 日本文 記錄의 終結하는 쓰임에 너의 魂 義務가 있다. My departed soul, will you accept me? 나는 이런 것으로 弔한다. 나는 저의 기억을 친히 하여 너의 생명을 발전케 하라한다. 과거된 영이여, 나를 바다라. 너의 애통한 일수(一首)를. 너의 영은 항상, 영원히 너의 속에 존재함을 깃거한다.

(1919년 1월 31일 『전집』Ⅱ, 445면¹²⁾)

‘사뭇러운 국문’이란 표현에 의거하여 이를 김우진 문학에서 한국어의 선언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김우진의 한국어 출발은 그다지 원만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 일기에서 김우진은 4~5년간을 일어로 기록하던 일기를 드디어 국문으로 기록하였다고 기꺼워하며 일본어로 일기를 쓰던 자신을 조상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대로 소멸해 가는 것

11) 윤진현, 『김우진 문학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02.2, 15면

12) 텍스트는 『김우진 전집』Ⅰ·Ⅱ(연극과 인간 2000)을 중심으로 삼고 『김우진 전집』Ⅲ의 영인본을 참고했다. Ⅰ·Ⅱ권의 경우 한자표기를 국한문병용 표기로 전환했으나 본고의 인용에서는 원문의 형식을 따랐다.

은 아니다. 일본어로 일기를 쓰던 자신과 국문으로 일기를 쓰는 자신을 이원적으로 인식하면서 일본문으로 일기를 쓰던 자신을 ‘과거의 영’으로 호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김우진은 일본어로 일기를 쓰던 한 시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과거, 일본어로 일기를 쓰던 자신과의 절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우진은 스스로 과거의 기억을 친히 하여 자신의 생명을 발전케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My departed soul, will you accept me? 과거된 영이여, 너를 바다라; ‘너의 영은 항상 영원히 너의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일본어 일기 쓰기를 통해 구축된 김우진의 존속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달리 말하면 김우진의 문학적 출발 안에는 각기 다른 언어로 발언하는 이중적 자아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때로는 김우진 문학의 근원적 동력으로 또는 근원적 장애로 기능한다. 또한 무의식적이 이러한 자기 고백에서 인지하고 있듯, 일본어를 사용하는 김우진은 청산되지 않는다. 이는 조선어의 구사를 기꺼워하던 계몽적 자아가 힘을 잃자, 일본어를 통해 고통스러운 내면을 고백하는 자아가 다시금 부상하게 되는 이후의 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919년 벽두, 국문일기를 쓰는 자신을 발견한 김우진에게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과 한반도에서 날아온 3·1운동의 소식은 민족적 열정을 부채질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2월 9일 일기를 보면 2·8 독립선언의 경과를 접하는데¹³⁾, 이어 최팔용 등 당시 2·8 선언의 주체들의 근황 등에 관심을 갖고 후속집회 등에 참석하며 민족적 관심이 고조되어 가는 경과를 엿볼 수 있다. 또한 3·1운동이 발발하자 각 신문들을 열람하며 그 소식을 자세히 알고자 노력하며 동맹휴교에 참여하고 최팔용을 면회

13) 영화 <사의 찬미>에서 김우진은 2·8 독립선언을 주도하는 것으로 형상화되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우진은 2·8 독립선언의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다만 준비모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와세다 동창 모임이 2월 2일에 있었다. 30여명 되는 동창생 중 참가자는 9명 김우진은 한국인에게 약속과 집회의 관념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하는 등 활발히 움직인다.

3·1운동이 일어나자, 김우진의 민족애는 한층 더 지극해진다 그러나 이는 그의 일기에서 볼 수 있듯 보수적인 유생, 즉 그 아버지의 견해와 별 차이 없는 멸망한 조선의 이씨왕조에 대한 미련과 같은 것이다. 순종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는 바는 자못 비장하며 순종의 장삿날이 되자 요배북천(遙拜北天)하는 등 그 충의는 전통적인 선비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이러한 시사적 내용과 이에 대한 자신의 행적 및 기타 일과를 기록한 일기가 1919년 4월 1일 2·8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선고공판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이 즈음에는 일기에도 독립에의 열정이 가득하다. “혁명은 세(勢)이다. 기(其) 결과가 엇더할는지.”(3월 3일)라든가, “아 전민족아 일어-나자!”라든가, “Self-determination은 우리의 유일흔 금일의 목표이다!”와 같은 독립선언서의 구절들이 변주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흥분과 열정은 마치 2·8 독립선언이나 3·1 운동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국문’으로 일기를 쓰는 자신을 발견한 기쁨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기 와세다 예과에 입학한 김우진은 한 편으로는 각종 강연회, 집회 등에 참석하며 사유의 폭과 깊이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으니 김우진이 ‘얻은 것이 많았다’고 기록한 ‘민인동맹회’, ‘여명회’ 등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철학적 핵심을 제공했던 그룹이었던 것이다.¹⁴⁾ 즉 철학적 깊이를 더해가면서 예술과 장래에 대해 진지한 고민에 직면하게 된 김우진이 계몽적인 ‘국한문혼용체’의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관심과 사유를 더 이상 효율적으로 형상화할 수 없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어 일기 쓰기는 김우진에게 더 이상 열정과 감격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일기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변적이거나 일상적인 갈등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14) 이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바, 1919년의 민족적 열정, 계몽적 자아는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즉 계몽적 자아가 약화되면서 자발적인 한국어에 대한 걱정 또한 수그러들고 있는 셈이며 김우진의 관심과 갈등, 고민을 기록하는데 보다 수월한 문자를 선택하면서 다시금 일본어 일기 쓰기가 강화되는 것이다.

2.3. 1920년 이후, 내면의 고백과 일본어 일기

<표 3> 일본어 일기 일람

번호	날짜		기술내용
	연도	월일	
1	1919	01. 25.	일상적 감상
2	1919	01. 24.	일상적 감상(感想)
3	1920	10. 05.	각막 헤르페스
4	1920	06. 14.	파우스트, 심적 갈등
5	1920	06. 28.	일상적 감상
6	1921	11. 26.	심적 갈등과 남녀관계의 감상
7	1922	11. 20.	청년적 과제와 이에 대한 회의
8	1922	03. 15.	예술론
9	1922	04. 22.	조선관기무용 관람 비판
10	1922	06. 19.	간디, 인류사적 과제의 담지자
11	1922	06. 02.	내적 갈등과 다짐, 간디
12	1922	03. 10.	춘향전에 대한 야망
13	1922	03. 18.	희망사항
14	1922	12. 04.	편지에서 비롯된 부자 갈등
15	1923	09. 02.	위인, 천재의 도전정신
16	1923	11. 18.	채동선의 방문, 여성관계, 성격 등에 대한 논평
17	1923	05. 30.	셰익스피어 단상
18	1923	05. 20.	부친 질병, 음성과 양성의 대립
19	1923	05. 19.	부친의 질병
20	1923	08. 30.	갈등하는 세 목소리
21	1923	05. 22.	부친질병 차도
22	1923	08. 25.	자기 성찰
23	1924	02. 08.	예술좌 관람 비판

격정적이던 1919년의 분위기가 지나가고 1920년 다시 일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일기에서는 더 이상 한국어로 일기를 쓰던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1919년의 활기는 찾아볼 수 없다. 1920년의 일기는 고작 7편 뿐이며 1921년에는 단 1편뿐이다. 이후의 김우진 일기가 전반적으로 어둡고 고통스러운 분위기를 띠고 있는 것과 그가 주로 갈등의 토로와 감상적인 카타르시스를 목적으로 일기를 집필했음을 감안할 때, 1920년에서 1921년에 이르는 시기는 김우진에게 나름대로 ‘살 만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그도 그럴 것이 극예술협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극예술을 공부하고 동우회 주최의 ‘하기 순회연극단’을 구성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선풍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그러나 김우진이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가중되던 1922년과 1923년에는 많지는 않으나 일기를 쓰는 횟수는 늘어나고 표출되는 감정 또한 더욱 격렬해진다. 그리고 이 시기의 일기는 오히려 일본어로 씌어진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1920년 이후의 37편의 일기 중 일본어 일기는 21 편에 달하며 영어와 둘 이상의 언어가 함께 쓰인 것도 6일분 정도가 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 일기의 내용 또한 예술적 성찰과 회의 가족 특히 부자 간의 갈등 등으로 사색과 고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김우진 자신이 내적 고백과 감정을 표출하는 데 보다 수월하게 생각했던 언어가 ‘일본어’임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자면 김우진의 입장에서 국한문혼용체로 기술되었던 일기가 열정적인 민족애를 드러내는 데는 무난했을지 모르나 내밀한 개인적 감정을 기술하는 데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 당혹하고 있었을 것이다. ‘조선어’를 통해서 자유롭게 드러내고 싶은 바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김우진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일어나 영어로 표현되는 것이 조선어로 번역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김우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朝鮮 말 엮는 朝鮮文壇에 一言」은 1919년에서 1922년의 경험이 반영

된 해답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김우진의 이후 문학적 실천의 지침이기도 했다.

3. 「朝鮮 말 업는 朝鮮文壇에 一言」과 그 실천 방법

3.1. 실증적 문제

초기 조선어로 표현되는 김우진의 계몽적 자아가 보여주는 언어적, 문학적 차원의 자각이 드러난 것이 「朝鮮 말 업는 朝鮮文壇에 一言」(1922)이다. 김우진에게 ‘조선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민족어의 발견이 지닌 주체적 자아의 확립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 것이었다.

우선 「朝鮮 말 업는 朝鮮文壇에 一言」(1922)에 대한 실증적 문제를 먼저 언급하겠다.¹⁵⁾

평론 「조선 말 업는 조선문단에 일언」은 그 말미에 1922년 4월 14일이라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전집에서는 같은 위치에 집필날짜와 함께 『중외일보』라는 신문명이 병기되어 있다. 그러나 육필원고의 사본에서는 그 같은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의구심을 더하는 것은 『중외일보』의 창간 시기이다. 『중외일보』는 1926년 11월 15일에 창간되었다. 김우진의 사후에 창간된 이 신문에 김우진의 1922년 글이 실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¹⁶⁾ 결정적으로 1922년 4월 14일이 이 글이 『중외일보』에 실린 날짜일 수는 없는 것이다. 1922년 4월 14일이란 날짜는 집필 날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중외일보』라는 신문명은 확인 후에야 사용

15) 텍스트는 김우진 육필원고의 사본과 『김우진전집』 I · II · III(연극과인간 2000)으로 하였으며 이하 『전집』으로 칭한다. 육필원고의 열람을 허락해 주신 홍창수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16) 현전하는 『중외일보』 중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떠한 경로를 거쳐 『중외일보』라는 표기가 첨가되었는지 확인을 요한다.

물론 원고 하단의 『Société Mai』 I (1925. 6.)이란 기록으로 미루어 1925년 6월 발간된 『Société Mai』 I 집에는 실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록은 1925년 대부분 원고를 정리하고 있던 김우진 자신이 기재한 것일 터이므로 이 원고의 집필 시기는 1925년 이전임이 분명하다. 또한 ‘旧稿’라 병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新稿’의 존재 또한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新稿’가 『Société Mai』 I 집에 실렸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전집에 실린 「조선 말 엮는 조선문단」에 일언,의 경우, 비어 있는 부분 등으로 미루어 초고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 인용문의 빈 부분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내 견문한 것만 들어도 위선 주시경(周時經) 씨의 『
』, 이규영(李奎榮) 씨의 『朝鮮文典』, 강매(姜邁) 씨의 『朝鮮文法提要』, 안확(安廓) 씨의 『朝鮮文法』, 全熙 씨의 『朝鮮語典』, 전두봉(全斗奉) 씨의 『조선말본』
이하 세 줄 생략 (『전집』 II, 237면)¹⁷⁾

여기에서 비어있는 주시경의 저서는 『조선문법』 혹은 『조선어문법』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주시경의 저서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김우진은 주시경의 다양한 저서들을 보다 꼼꼼히 확인하고 거론하기 위하여 비워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생략된 세 줄 또한 이 시기의 다양한 어문관계 저술들을 망라하기 위해 예비한 공간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거론한 문법서들은 강매의 저서가 1921년으로 1920년대에 발간된 것이고 그 외에는 모두 1910년대의 저술들이다. 그러나 이 시기 이러한 형식의 문법서들은 지

17) 이상의 거론된 저술들의 발표 연대는 다음과 같다.

이규영, 『조선문전』, 1920년 / 강매, 『조선문법제요』, 1921년 / 안확, 『조선문법』, 1917년 / 김희상, 『조선어전』, 1911년 / 김두봉, 『조선말본』, 1916년

속적으로 출간되고 있었던 바, 보완 후 보다 완결된 글을 쓰고자 했던 것 같다.

아울러 이상의 인용에서 전두봉을 김두봉으로, 전희(全熙)를 김희상(金熙祥)으로 바로잡는다. 『조선말본』은 1916년 발간된 김두봉의 저서이고 『조선어전』은 1911년 10월 15일에 보급서관에서 발행된 김희상의 저서이기 때문이다.¹⁸⁾

3.2. 문학어로서의 조선어, 그 표준어의 제정·훈련·유통

김우진은 조선에 조선말은 없다고 전제하고 조선어를 부흥하고 개량하며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특수한 문화적 이상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문전 제정과 사전 편찬 둘째 구비전설과 민요·동요의 수집, 셋째 외국문학의 번역 넷째 신문·잡지의 대중화이다. 이것은 민족어의 수립과 이의 자유로운 구사를 위한 훈련과정,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한 유통과정에 각각 상응한다. 그리고 이들 방안은 김우진의 필요 또는 문학적 작업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첫 번째는 조선어 문학을 추구하는 자신의 필요로부터 산출된 것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제는 김우진의 문학적 작업 안에 긴밀히 결합되어 있고 네 번째 안은 『Société Mai』의 창간과 연관되어 있다.

이 중 문전의 제정과 사전 편찬 작업에 대한 강조는 국한문혼용체에 의한 계몽적 사유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조선 말 없는 조선문단에 ‘한마디(一言)한다’는 행위는 1900년대 이래로 지속되어 온 계몽적 연설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전 시기의 그것과는 달리 이 연설에는 화자와 청자, 계몽 주체와 계몽 대상의 경계가 그다지 선명하지 않다. 조선

18) 육필원고를 검토한 결과 전(全)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나 김우진 자신이 빈 부분을 남겨 두고 유보했던 구절이고 『조선말본』의 저자가 김두봉인 점을 감안, 김두봉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말이 없는 ‘조선문단’에는 김우진 자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용할 언어를 수련함에 가장 민감한 십칠, 팔세시부터 외국에 유거하여 듣는 것, 읽는 것이 모두 외국어였기에 국어 속어 방언의 구사 능력에서 스스로 참괴함을 억제치 못하는¹⁹⁾ 김우진의 자기 통찰은 1919년 이후의 시간으로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는 1919년 이후 일기 등을 통해 조선어를 시험하면서 스스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표현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자기 고백인 것이니 문전확립을 통해 계몽하고 지도해야 할 대상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국문으로 일기를 쓰면서 기꺼워하던 1919년 1월부터 1922년까지 15편의 시, 산문과 일기 등을 집필하면서 김우진은 “의 사용과 ‘ㅅ’계 합용 병서/각자병서, 분철/연철/과분철 등 같은 단어를 기록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예를 들면 부사격조사 ‘~부터’만 보더라도 김우진의 구사하는 것은 ‘부터/부터/부터/부터’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무엇이 ‘정확한 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김우진의 고민은 집필과정에서 더욱 가증되는 것이었을 터이다. 아울러 이것은 문전과 표기가 확정되어 있는 영문학과와의 비교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곤란이었을 것이다.

김우진이 개성의 실재를 믿으면서도 이를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성의 실재와 그 상징이 있을 뿐이요, 재현은 전무하외다’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던 소이가 여기에 있다. 심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표현할 정확한 단어를, 혹은 외국어에서 습득한 어휘의 정확한 번역어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외국어라는 거울에 비추어도 조선어를 찾지 못하는 고층에서 문전의 정리라는 과제가 도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더욱이 이는 돌출적이고 선언적인 제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당

19) 『전집』 II, 235면

시의 문법 연구서를 섭렵하면서 도달한 결론이었다. 김우진은 앞서 인용한 여러 초기 국어학자의 저술들을 열거한 후 이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이들의 모순점과 불완전함을 개선하고 완전무하한 신문전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여기 부수(附隨)하여 희망하는 것은 신(新) 문전, 사전의 출현이 조선어의 표준을 맨들 일이외다. 우리말은 지방에 짬아 문전상(文典上)의 상이가 비교적 적음으로 표준어의 일정(一定)에는 과(過)한 곤란은 업슬 것입니다. (『전집』 Ⅱ, 237~238 면)

여기에서 김우진은 통일된 ‘표준어’란 개념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어’의 제정이 시급하며 표준어 제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단언하고 있다. 김우진에게 언어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균질화된 교환매체로 상상되고 있었으며 이 매체의 기원은 ‘민족어’이었다. 민족어를 내용상 구성하는 방법이란 고유한 문학적 유산을 수집, 정리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구비 전설과 민요·동요의 수집은 일상어의 문학어화의 일환인 셈이다.

우리의 민요·속요나 동화·전설을 수집, 부활하라 원하는 나의 조건은, 그 운율과 시형의 우수점을 쇠천하게 말고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신시가에 넓은 범위를 부여하라 함에 불과하외다. (『전집』 Ⅱ, 241 면)

김우진이 민요·속요·동화·전설 등을 수집, 부활해야 한다는 것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인류학적 목적과는 다르다. 전래하는 형식의 수용을 통해 새로운 시가의 자질을 보다 풍성하게 만드는 데 있었던 것이다. 김우진은 이 시기 조선미학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예술은 춘풍에 날리는 서류(絮柳) 같

은²⁰⁾ 선적인 슬픔'을 가졌으나 그것은 과거의 것이고 과거의 환경적 특색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애감의 실체를 표현하면서 자기 안에 감춰진 보옥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²¹⁾ 즉 김우진은 조선어의 사용 대중이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오던 민요, 동요, 전설 등의 장르에 주목하여 이의 수집과 정리를 통해 조선어의 표현능력을 제고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상 구어'의 문학화가 용이한 '희곡' 또는 '연극'에 주목하게 된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조선의 일상어를 통일된 문학어로 재편해야 한다는 인식에 접근하면서 일상어 장르인 '희곡'으로 자신의 창작 장르를 한정해 가는 과정이 자연스럽다.

좀더 넓은 범위 안에서 무대상의 대화 즉 희곡에 있어서의 언어는 내용과 함께 동량의 중요성을 가졌습니다. 사상을 당대의 사상 범위 밖으로 나아가거나 또는 무대상의 언어는 반드시 그 당시의 관중에게 직접하고 친자한 예술적 전달을 하여야 할 것이외다. 극작가의 직접하고 친자한 의사 감정의 전달에는 그 주위의 일상 사용하는 언어의 순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극적 대화에는 이만한 구속을 감수하는 것보다도 그 구속의 철퇴를 능히 예술적 친분으로 조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집』Ⅱ, 233 면)

즉 김우진은 일본연극의 모방과 사조적 수용을 통해 '자연주의'적인 재현에서 연극을 시작한 동시대 여타 작가와는 달리 영문학의 습득 과정에서 주목한 민족어의 정립과 표준어 제정의 필요로부터 고유한 문학적 유산을 정리하고 일상어의 통일된 문자화, 즉 언문일치의 이념으로부터

20) 김우진의 시, <가을 강가에 시드러져 가는 당버들을 보았노라>(1924. 10)라는 시의 정조가 이 구절과 연관하면 보다 원만히 이해된다.

21) 『전집』Ⅱ, 241 면

‘희곡’ 장르를 정립해 나갔던 것이다.

아울러 외국문학의 번역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또한 서구문물의 추적과 수용을 주된 목표로 삼던 이전 시기의 계몽적 목표와는 다소 결을 달리한다. 전 시기 외국문학의 수용이 외국문물에 대한 소개와 내용상의 학습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었다면 김우진의 경우는 이러한 내용상의 수용을 통한 사상적 자극 외에도 그 번역에 따른 언어의 확장·고색(固塞)하여 가던 정신을 일깨우고 언어의 사용법을 넓히며 어풍과 문맥의 청신한 국면을 열고자 하는 전략적 접근이었던 것이다.²²⁾ 즉 번역 과정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어휘와 이를 통한 사유의 확장은 조선어의 표현 능력의 확대라는 목표를 위해서 보다 강조되었던 것이다.

‘신문·잡지의 민중화’에 대한 구상 역시 조선어와 조선문학의 전과경로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다. 김우진은 신문·잡지의 지도적 역할을 전제로 새로운 용어, 개념 등이 일반 대중과 직접적으로 전파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는 달리 말하면 새롭게 구축되는 조선문학이 신문과 잡지를 매개로 직접적으로 대중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서 새로운 조선문학의 유통경로를 신문·잡지에 두고 이것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중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에서는 ‘신어(新語)의 조출(造出)에는 상당한 용의주도가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²³⁾ 외국어의 번역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오남역이 횡행하는 실상에 대한 통절한 자각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낼 때는 신중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새삼스럽다.

이렇게 「조선 말 엮는 조선문단」에 일언」하는 것으로 김우진은 자신의 입장과 방향을 확고한 것으로 만든 것 같다. 이후 김우진은 ‘.’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1925년 따로 선별한 시편에서는 ‘.’의 표기를 수정하고 합용병서를 각자병서로 정정한 사실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당

22) 『전집』Ⅱ, 242면

23) 『전집』Ⅱ, 243면

시에 주요 매체들에 통용되던 일제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의 ‘ㅅ’계 합용병서와는 달리 주시경 등의 한글학자의 견해를 따른 것이었다. 즉 당시의 문전 학습을 통해 나름대로 표기 원칙을 결정해 나갔던 것이다.²⁴⁾ 또한 김우진은 일상어의 정리, 즉 존 밀링턴 썬이 하녀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고 어부들과 목축자들의 언어를 항상 들어두었던 것과 같은 작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시를 매개로 한 그의 습작 작업은 <춘호행>, <춘강화월야>²⁵⁾ 등의 한시의 번역과 같은 분위기를 띠는 작품에서부터 <봄바람과 비>와 같은 동요조의 시, <이국의 소녀>, <이단의 처녀와 방랑자>, <방랑자의 묘명>과 같은 번역의 분위기가 물씬한 낭만적인 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과 내용에 미치고 있다. 집필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다논치오의 <영웅>이나 버나드 쇼의 <위렌부인의 직업> 등이 번역되는 것도 같은 작업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내의 갈등과 문학적 번민 등 여러 가지 장벽에도 불구하고 오월회를 결성하고 동인지 『Société Mai』를 간행하는 것 또한 이러한 자기 목표에서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련과정을 거치면서 김우진의 진술방식은 변화한다. 1924년 11월 29일 일기는 그의 가정 풍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체의 변화는 1919년 국문일기를 처음 쓸 때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정한이가 진길의 앞헤와 서서 “누늬 누늬”하는 소리가 나를 깃깝게 유쾌하게 하는 동시에, 그 앞헤 서서 “쉬쉬쉬쉬”하며 오줌 싸는 흥내를 내는 것을 쪼워라고 손치고 웃고 떠들고 찬미하는 어머니, 여동생들을 볼 때에, 나는 소리질렀다. 한쪽 구석에 와 안지라구 해도 별안간 소리지르난

24)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좀더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윤진현, 「김우진 희곡 <정오>의 창작 연대」, 앞의 책 47~51면 참고

25) <春江花月夜>는 악부시의 제목으로 여러 사람의 작품이 남아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吳中四士’로 불리던 당시인 張若虛이다.

내의 얼굴 빛에 놀넌 것을 보고 진길이는 오지 않는다.

(괄호 필자, 『전집』Ⅱ, 510면)

한글전용문장에 가까운 이상의 글은 이전의 국한문혼용체에서 비롯되는 계몽적 언술과는 전혀 다르다. 감정이나 태도를 묘사하고 기술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조카 정한이가 딸 진길의 앞에서 “누님, 누님”하고 아기다운 혀 짧은 소리를 낸다. 그것은 김우진을 유쾌하게 한다. 그러나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앞에서 오줌 누는 흉내를 내자 가족들은 좋아하지만 김우진은 마음 상하고 화가 난다. 남아선호사상에 찌든 집안에서는 진길이 이 때문에 어떤 상처를 입는지 그것이 얼마나 야만스러운 일인지 자각이 없고 어머니를 비롯한 누이들조차 여기에서는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역겹게 바라보는 화자(김우진)의 행동 또한 폭력적이기는 매일반이다. 이를 인식하는 김우진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자, 그의 어린 딸 진길은 놀라서 오히려 아버지를 피하고 만다. 김우진이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가정의 일각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더욱이 호칭에 대한 표현상의 변화도 주목해 볼 만하다. 여기에서는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김우진은 계모 동복오씨(계제 익진의 생모)에 대해 1922년 9월 24일의 일기에서는 소모주, 피녀 등의 호칭을 사용한 바 있었다.

우편 암석에는 오늘 午正 목포로뵈허 도래한 小母主가 안겼섯다. 彼女は 사랑하는 모친의 심정으로 오늘 병 치료하러 온 그 아들을 보아 무한한 환희와 愉快가 있는 듯하얏다.

(1922년 9월 24일 『전집』Ⅱ, 491면)

‘主’는 구결에서 ‘님’을 의미하는 바, 소모주는 작은어머님 정도로 번역

할 수 있다. 이것은 1919년의 일기에서 “自父主下書”²⁶⁾ 등 아버님을 ‘부주’로 기록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단어이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 동북오씨는 가족 내의 권력은 크지 않았으나 김성규의 첩실이었던 것은 아니다. 마치 ‘서모(庶母)’를 지칭하듯 ‘소모주’라 칭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생모가 아닌 어머니를 문자로 기록할 때, 김우진은 아버지를 ‘부주’로 높이듯 문자와 구어의 불일치를 겪고 있었던 것이며 이것의 표현이 ‘소모주’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1924년 11월 19일의 일기에 이르면 ‘소모주(小母主) 작은어머님’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단어를 구사해야 했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구어, ‘어머니’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 이르러 김우진은 자신이 겪는 가족 내의 갈등과 불만, 나아가 다양한 정서를 ‘조선어’를 매개로 해서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즉 「朝鮮 말 업는 朝鮮文壇에 一言」에서 제안했던 조선어의 표준문전 제정, 훈련, 유통의 과정을 김우진 나름대로 거치면서 조선어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고 조선어 구사능력이 일정 수준에 다다른 때인 것이다. 이로 보면 김우진의 주요 작품들이 이러한 수련 과정을 거친 1925 ~ 1926년 사이에 주로 창작된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으로 김우진의 일기를 중심으로 김우진이 자신의 표기어를 발견하고 정립해 가는 과정과 이것의 선언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朝鮮 말 업는 朝鮮文壇에 一言」을 살펴보았다.

26) 아버님의 편지로부터, 자는 ~로부터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조사.

집필 수단으로 특정 문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특정문자가 지닌 제도적 합의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 표준어의 성립과정은 각 문자체계가 이러한 제도적 합의에 도달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역사를 거치면서 조선어는 민족어가 특정 지역의 공적인 인준을 거치는 과정, 달리 말하면 국가권력의 지지를 받아 국가어와 동의어가 되는 마지막 단계를 거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총독부의 철자법 규범 등과 대결하면서 조선어의 제도적 합의 과정은 국가권력과 대립적인 양상을 띠고 발전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특정 문인 및 조선어 문단은 개별적으로 조선어 쓰기의 규범을 마련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며 문자와 문체를 선택하는데 갈등을 겪은 주요한 작가들 중의 하나로 김우진을 꼽을 수 있다.

김우진은 1919년부터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초기 조선어 규범 내에서 구축한 ‘운동적 차원’의 계몽적 자아와 대면하게 되며 이는 3·1 운동의 경과를 기록하면서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민족적인 열정이 수그러들고 관심영역이 변화하면서 선택하는 문자와 기술내용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발생한다. 그러나 김우진이 궁극적으로 구상했던 것은 다양한 영역의 관심과 이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조선어였다. 따라서 김우진은 1922년 그의 평론 「조선말 업는 조선문단에 一言」에서 표준어의 제정과 이를 훈련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유통하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당대 조선문학의 과제와 자신의 문학적 목표를 정립한다. 이는 이후의 김우진의 문학적 실천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김우진이 확정해간 언어규범은 당시의 출판 및 보통학교 용으로 조선총독부에서 포고한 철자법과는 거리가 있으며 조선어의 훈련과정으로 제안한 민요, 동요, 전설 등의 채록과 번역 등은 민요조를 시험한 시편들의 창작과 일상어를 문학어로 재편하는 희곡 장르에의 접근, 영문학 등의 번역 과정 속에서 드러난다. 아울러 대중적인 신문·잡지의 활성화를 통해 조선어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니 목포

에서 발행한 『Société Mai』 등의 잡지가 이러한 김우진의 관심과 실천방법을 보여준다.

즉 그의 일기와 평론 「조선말 엮는 조선문단에 一言」은 김우진이 ‘문자’를 선택하고 단련해간 경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문헌으로 다시금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김우진, 문자의식, 김우진의 일기, 「조선말 엮는 조선문단에 一言」, 문학어

참고문헌

1. 1차 자료

김우진, 「朝鮮 말 엮는 朝鮮文壇에 一言」, 육필원고 (홍창수 소장 서연호·홍창수 공편, 『김우진전집』 I·II·III, 연극과인간, 2000.

2. 2차 자료

(1) 단행본

김윤식,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가라타니 고진/송태욱 역, 『근대 일본의 비평』, 소명출판, 2002.

미야카와 토루 외/이수정 역, 『일본근대철학사』, 생각의 나무, 2001.

아놀드 하우스/염무웅·반성완 공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근세편 下, 창작과 비평사, 1989.

(2) 논문

윤진현, 「김우진 문학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 논문, 2002. 2.

- 윤진현, 「김우진 희곡 <정오>의 창작연대」, 한국극예술학회 편 『한국극예술연구』 18집, 2003.10. 39~67면
- 이현식, 「한국 근대 문학 형성의 사회사적 조건」,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민족문학과 근대성』, 문학과 지성사, 1995, 66~97면
- 이혜령, 「한글운동과 근대 미디어」, 민족문학사학회 기초학문연구단 편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5, 37~77면.
- 임병권, 「'고백'을 통해 본 내면성의 정착과 주체의 형성」, 민족문학사학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5, 137~154면



Abstract

Kim Woo-jin's Consciousness of Characters and Existing Process of
Literary Language

- In the Centroid of A Diary and 「A Speech about the Korean Literary Circles
which Korean Language is not in」

Youn, Jin-hyeon

An author selects a specific character to write. It means that he has intentions and abilities to achieve institutional mutual agreement of the character. We define existing process of modern standard language as achieving institutional mutual agreement of each character system. Korean language, however, couldn't passed by process of public admission as national language because of colonial history. So its institutional mutual agreement had confronted with the spelling of the government-general and had developed against with national authority. In that process, specific literary men and literary circles had separately arranged the writing standard of korean. Kim Woo-jin is one of the important author to strive selecting characters and literary styles.

Kim Woo-jin met enlightening self to be constructed in the early korean standard while he has writing diary in korean from 1919. It was disclosed to record the progres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March. But he changed to select characters and to write contents after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March because its national passion went down and his concern changed. He ultimately embodied korean which wasn't lacking to express his variety concerns. He proposed presentation of standard language, and method of its practice and circulation in 「A Speech about the Korean Literary Circles which Korean Language is not in」 in 1922. Through that thesis, he erected the subject

of korean literature of the day and his literary goal. It has intimate relation to his literary practice thereafter. First Kim Woo-jin's language standard are different from the spelling of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He proposed to extract and translate of a folk song, a children's song and a legend. Its methodology revealed in his poems, drama, and translation. Also he tried to establish korean circulation system through revitalization of popular newspapers and magazines. His concern and practice were revealed in *Soci  t   Mai* which was published in Mokpo.

Namely, we pay attention to Kim Woo-jin's diary and criticism- 'A Speech about the Korean Literary Circles which Korean Language is not in 』 as intensive documents to show his selecting characters and training progress of them.

Key words : Kim Woo-jin, Consciousness of Characters, Kim Woo-jin's Diary, 'A Speech about the Korean Literary Circles which Korean Language is not in 』 literary language

접 수 일 : 2006년 2월 28일
심사기간 : 2006년 3월 1~ 25일
게재결정 : 2006년 4월 7일(편집위원회)

